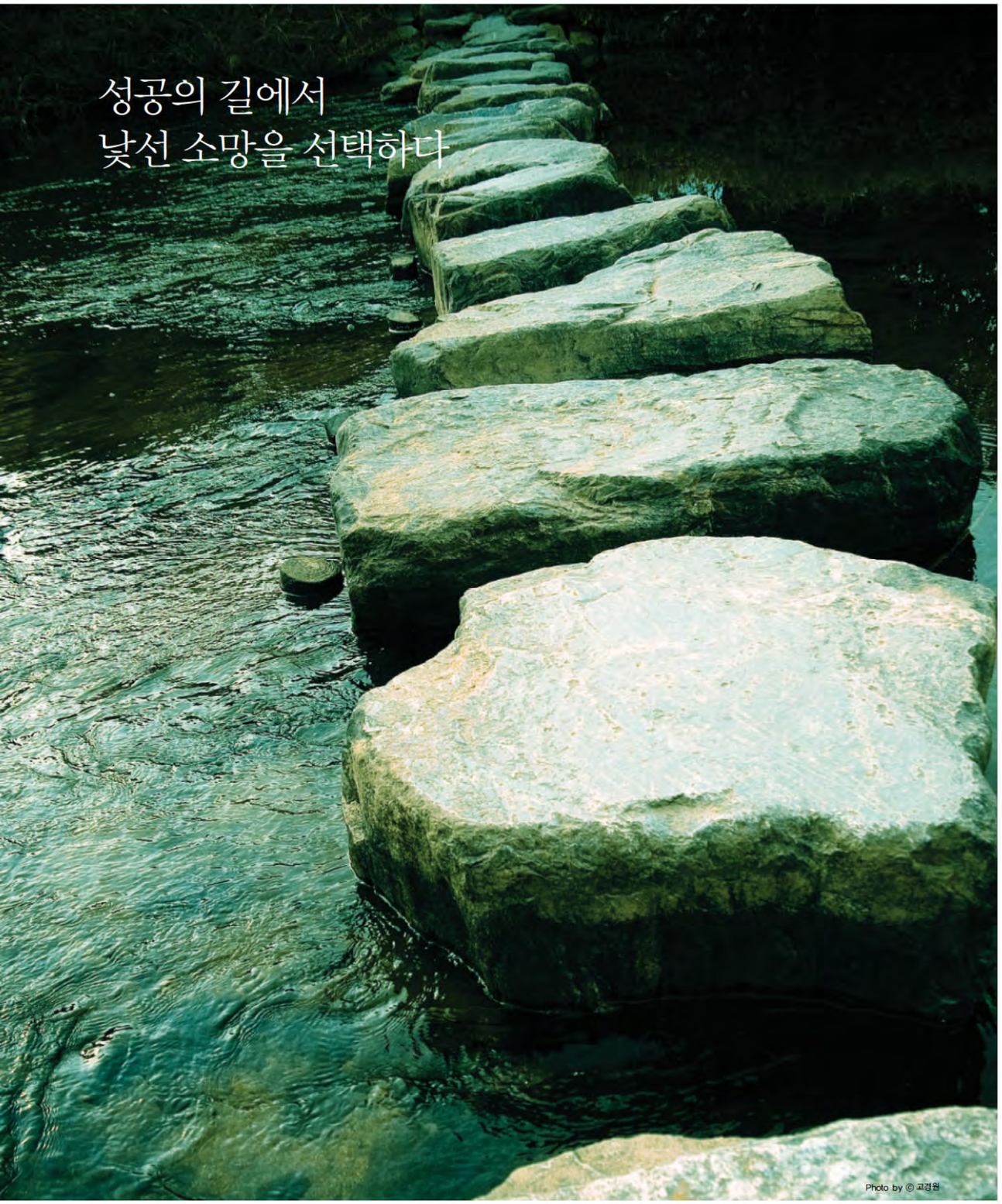

성공의 길에서 낯선 소망을 선택하다

장영일 목사

계명대학교 철학과(B.A)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미국 리폼드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Th.M.)와
선교학 박사(D.Miss.) 학위를 취득했다.
대신대 선교학 교수, 교갱협 대구경북 대표회장,
OM선교회 대구지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범어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만약 당신이 89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하여 10년간 교회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켰다고 가정해 보라. 그 10년 동안 장로들을 비롯하여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성도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동료 목회자들과도 좋은 동료관계를 형성하며, 지역 내 신학교와 신대원에서 강의를 통해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과연 그런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아마 보통의 목회자라면,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놓은 성과에 만족하여 미지의 영역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범어교회의 장영일 목사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오랜 역사와 깊이 있는 전통을 자랑하는 1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 부임하여 10년 동안 해마다 100여 명씩 꾸준한 성장을 통해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제자훈련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그렇다면 그는 왜 제자훈련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제자훈련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면서 그가 발견한 사실은 무엇일까? 대구 범어교회 제자훈련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끊임없이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전통적인 교회에 제자훈련을 접목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발견1. 새로운 것보다 중요한 것에서 시작하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듯이, 1995년 장 목사가 처음 부임했을 때 범어교회 역시 이런저런 문제들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전임목회자가 급히 사임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회 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당회를 비롯하여 교회 내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었다. 사실 89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 정도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장 목사는 이에 대해 다르게 말한다.

"당시 범어교회를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 다소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목회하기에 어려운 교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 같지만, 제가 범어교회에 부임해서 느낀 첫인상은 '교회가 참 영적 토양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지금은 서울의 강남과 같은 신개발지이지만, 당시만 해도 농경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적 토양이 매우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즉 그 바탕에는 '농심(農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당시 39살밖에 안 되는 젊은 목회자인 저를 '열심히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게 따라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는 태도다. '세계 최고의 석유왕'이라고 불렸던 존 D. 록펠러는 "나는 사람의 실력보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임금을 결정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를 디딤돌로 여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장애물로 여긴다. 장 목사는 범어교회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즉 단점이 아니라 장점에 주목한 것이다. 사실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들은 단점부터 찾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기 쉽다. 하지만 장점부터 찾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어쩌면 변화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

또한 장 목사는 기본, 즉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시작했다. 부임하자마자 새벽기도를 통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것이 교인들의 마음이 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는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해
복음적인 설교로 매년 100명씩 안정적 성장을 10년 동안 이뤄왔다.
하던 목회 스타일대로 유지만 해도 되는, 굳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은퇴 이후에도 범어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세대가 교체됐으나 흔들리지 않았던 사랑의교회를 주목했고,
그 근간이 제자훈련임을 인식한 후, 용기를 내어 제자훈련을 교회에 도입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고 그는 말한다. 기도의 현장을 통해 장 목사가 가지고 있던 목자의 심정이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기도와 더불어 말씀이 필요했다.

범어교회와 같이 오래된 교회의 경우, 3~4대째 신앙생활을 해온 오래된 성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웬만한 설교로는 그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복음으로 돌아갔다. 모태신앙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복음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복음에 대해 재인식하도록, 복음이 말하는 용서와 화해가 마음속에 젖어 들게 한 것이다. 결국 "원초적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계기가 되었다.

장 목사는 전통적인 교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특별히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단점의 폐해가 아니라 장점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충실히 행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하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인 셈이다.

발견2.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성공을 주목하다

보통 변화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된다. 즉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야 변화를 추구하고 해결책을 찾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전의 성공이다. 이전의 성공에 만족해 있다면, 어떠한 변화도 추구하기 어렵다. 범어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임한 지 10년 동안 해마다 100명씩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굳이 자신의 목회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까? 이에 대해 장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부임 후 10년 동안 저는 강단 중심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열매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모래성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도 행복해하고 교회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먼 훗날 범어교회는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제 우려 그대로였습니다. 목회자가 늙어감에 따라 교회도 늙어갔고, 목회자가 떠나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더 이상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목사가 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결국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목회를 한다면, 자신의 시대에는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잘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는 세대를 넘어, 사람을 넘어, 세월을 넘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이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장 목사가 찾은 해답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으로 주변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바라보니, 모든 교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지만, 한 목사님이 떠난 이후로 영락교회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세대를 넘어서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대를 넘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교회였습니다. 옥한흠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로도 사랑의교회는 전혀 흔들림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살펴보니, 제자훈련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장 목사가 제자훈련이란 낯선 길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이었다. 사실 50이라는 나이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시도하기에는 쉬운 나이가 아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성공을 안겨주었던 길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의 길에서 자신에게 성공(?)을 안겨주었던 목회방법론을 뒤로한 채, 제자훈련이라는 낯선 곳을 향한 도전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다워지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용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에 주목할 때 이러한 용기를 배우게 된다.

발견3. 위기의 순간에 진정성을 전달하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제자훈련이라는 길을 선택했지만, 평탄한 길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역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접목하고자할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그 역시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장애물1. 목회자 개인의 사람을 만든다?

장 목사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먼저 부딪힌 장애물은 장 목사 개인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제자훈련을 실시한다는 오해였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장 목사 똘마니 만드는 것 아니냐' 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오해로, 제자훈련을 예수의 제자가 아닌 담임목회자의 제자를 만들어, 본인 마음대로 교회 사역을 전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다.

사실 어떤 사역이든 어느 정도의 오해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모든 오해에 대해 목회자가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오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 목사가 우려되었던 것은 이러한 목소리가 반대의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참여를 안 하는 것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다르다. 따라서 목회자는 잘 판단해야 한다.

장 목사가 이런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대응책으로 선택

궁금합니다

CAL세미나를 참석하지 않고 제자훈련을 시작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목회자의 경우, CAL세미나를 수료한 이후에 제자훈련을 지역 교회에 도입한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이미 실시하다가도 CAL세미나를 들은 후에는 자신이 했던 제자훈련이 잘못됨을 느꼈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그런데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는 3기까지 제자훈련을 마친 후에 CAL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는 CAL세미나에 참석한 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훈련을 하다가 CAL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더욱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막상 CAL세미나에 참석해 보니까,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자훈련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CAL세미나에서 다루는 내용을 제 것으로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미나 때 방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훈련 경험이 없는 참석자들의 이해도가 자신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장 목사는 옥한흠 목사의 『평신도를 깨운다』를 통해 제자훈련의 철학과 원리를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제자훈련을 원칙대로 철저히 실행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원칙대로 해서 CAL세미나 때 많이 반성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과 부교역자 시절, 이미 제자훈련에 대한 경험이라는 자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장 목사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정기적으로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점검하는 것의 유익이다. 즉 제자훈련의 경험이 쌓였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평신도를 깨운다』를 다시 읽거나 CAL세미나 테이프를 청취함으로써 제자훈련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하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알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궁금합니다

기존 중직자들부터 제자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 제자훈련을 접목할 때는 기존의 중직자들부터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중직자들을 제외하고 제자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회 내 여러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어교회의 경우 당회원들부터 제자훈련을 시키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훈련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 성도의 제자훈련화를 주장할 정도로 제자훈련이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범어교회의 경우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기간 동안 장 목사와 기존 리더십 그룹 간의 충분한 신뢰관계가 쌓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장 목사가 제자훈련이라는 새로운 목회 철학과 방법을 도입했을 때도 큰 반대 없이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리더십 그룹과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전통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접목하기 위해 기존 리더십의 동의와 후원을 얻는 작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동의와 후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로 하여금 제자훈련의 일차적 수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한 것은 자신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목회자에게는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제자훈련을 통해 목회자와 훈련생 간의 인격적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훈련을 통해 목회철학을 공유하다 보면, 이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픈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특히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제자훈련이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므로, 훈련생들이 훈련 이후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리하게 목회자가 훈련생들을 사역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는 제자훈련의 본질적인 목적과 방향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목회적 도구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보다 목회를 우선시 할 경우, 제자훈련이 그저 유능한 기능인을 양성하는 코스로 전락하기 쉽다.

그래서 장 목사는 훈련을 시켰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 내 사역을 재배치하거나 이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지는 않았다. 즉 제자훈련이 목회자 개인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진심을 실제로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제자훈련이 교회의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진심을 보여준 것이다.

그 결과 처음에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3, 4기 때에는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들 역시 제자훈련 목회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다.

장애물2. 비경제적인 방법이다?

다음으로 부딪힌 장애물은 담임목회자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는 비판이었다. 사실 장년만 2천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담임목회자가 10명 남짓의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목회 방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물론 부임심방을 제외하고는 대심방을 원래 하지 않았지만, 제자훈련 때문에 자신들에게 투자되는 시간이 적다는 불만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 역시 어떻게 목회자가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장 목사는 말한다.

"전통적인 신앙관에 익숙해진 성도들에게는 매주 담임목회자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심 부럽지만 이를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불만인 것처럼 가장해서 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을 단편적으로 시기와 질투로 보기보다는, 목회자를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즉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성도들의 문화와 화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장 목사는 제자훈련으로 인해 다른 목회활동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기존의 목회에 훈련까지 하려고 하니,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은 외부활동을 줄이는 것이었다. 훈련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인기가 좋았던 신학교 강의도 그만두고 외부 강의나 설교도 나가지 않고, 오직 훈련과 교회 내 사역에만 집중한 것이었다.

장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경제적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겨자씨의 비밀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훈련한 결과, 지난 4년간의 훈련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전의 강단과 심방 중심의 전통적인 목회에 비해 훨씬 큰 유익을 교회가 누리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장은 비경제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가장 경제적인 방법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장 목사는 훈련을 통해 어떤 유익을 누렸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일까?

발견4. 전통과 형식에 생명을 불어넣다

작년까지 범어교회는 제자훈련은 4기, 사역훈련은 3기까지 마쳤으며, 수료생은 제자훈련은 271명, 사역훈련은 159명이 수료했다. 현재 주일예배 장년출석인원이 2천 2백명임을 감안할 때, 약 10% 이상이 수료한 셈이다. 그리고 현재 소그룹도 주일 담임목회자의 설교를 가지고 다루는 귀납적 소그룹으로 바뀌었으며, 177개의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훈련을 통한 열매가 교회 곳곳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범어교회가 훈련을 통해 누린 유익은 무엇일까?

열매1. 전통의 생명을 회복하다

훈련을 통해 얻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매는 "변화"라고 장 목사는 말한다. 즉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훈련을 통해 변화된 모습은 다른 성도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교회 전반에 이전과는 다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훈련생의 가정에서 일어난 변화의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불신남편이 부인 숙제를 컴퓨터로 타이핑 해주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나, 세족식이나 남편 칭찬하기 등의 생활숙제를 통해 남편과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았던 이야기, 과제물을 하느라 책 읽는

어머니로 바뀐 이후로 자녀들이 변한 이야기 등 훈련생들의 가정에서 일어난 회복의 이야기는 훈련의 힘이 얼마나 큰지 주변의 성도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훈련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부임 이후 장 목사는 매년 1박 2일로 큰 규모이지만 전교인 수련회를 다니는 등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훈련을 통한 공동체성은 이와는 다른 것이었다.

훈련을 통해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로 지병이 낫는 등 응답의 열매까지 맛보면서 교제의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가난한 훈련생의 자녀들을 위해 동료 훈련생들이 학비까지 모아 장학금을 지급하는 미담까지 넘쳐나면서, 형식적인 교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장 목사가 전도하라고, 봉사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훈련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봉사의 장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사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강조해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실상이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 은혜를 받자 훈련생들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고, 훈련 받지 않는 사람들도 동참하며 이러한 문화를

제자훈련은 범어교회가 갖고 있던
귀중한 전통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삶이 변화된 성도들이 교회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자신의 직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건축안들이 나오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 목사 자신이
제자훈련에 집중하며
예상치 못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열매를 맺게 했다.

함께 만들어가게 된다.

사실 전통은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3~4대 내려온 신앙의 뿌리와 힘은 비록 지금은 고루해 보일지라도, 많은 신앙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에 생명을 불어넣기만 한다면, 전통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귀한 자산이 된다. 바로 범어교회가 그랬다. 삶의 변화라는 무기를 들고 훈련생들은 교회 곳곳에서 전통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을 방해물로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한 대부분의 젊은 목회자들이 개혁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 교회의 문화, 영적 토양들을 한순간에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니 급한 개혁은 오히려 갈등만을 낳고 맙니다. 성도들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가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신을 고무신조차 사지 못할 형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건축했던 그들의 신앙의 저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통이 생명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고,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러한 전통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의 귀한 영적 자양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통은 훈련의 방해물이 아니라, 훈련의 열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현재 범어교회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매주 300여 명의 성도들이 노숙자 식사 대접,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극빈가정 방문 음식 제공, 상담 및 호스피스 사역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활동들은 이전에도 있었던 활동이었다. 그런데 훈련생들이 이들 사역에 투입되자 사역의 질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 역시 훈련 후 다양한 봉사의 장들이 있기에 지적 훈련으로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제자훈련의 열매가 풍성해 지도록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열매2. 형식의 내용을 회복하다

전통적인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기존의 조직이 견고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방해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조직들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의 형태가 아니라 내용이라고 장 목사는 말한다.

"이른바 평신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역사를 지닌 교회라면 일정 형식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직이 행정 조직이라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 조직을 목양 조직으로 바꿀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기존의 질서와 직분은 존중하되, 질서와 직분에 걸맞은 섬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에 걸맞은 내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장 목사는 훈련이야말로 기존의 형식에 걸맞은 내용이 채워지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 목회철학을 나누면, 평신도 지도자들도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위치에 맞는 섬김을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범어교회는 직분을 성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범어교회는 교회에 출석한 지 2~3년밖에 되지 않는 성도가 청년부의 회장을 맡기도 한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현상인지를 잘 알 것이다. 전통적인 교회는 오래된 신자와 새로운 신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벽은 새신자로 하여금 교회 중요 직책을 맡기는커녕,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100여년의 전통을 지닌, 3~4대가 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수두룩한 범어교회에서 2~3년된 신자가 교회의 중요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장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제자훈련이 결국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이 단순히 프로그램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원하는 성도들이 훈련을 신청하고 훈련 받고 수료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범어교회라는 전 공동체가 제자훈련의 정신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직분의 계급성보다는 섬김의 기능이 강조되고, 직분은 섬기는 장이라는 의식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훈련을 통해, 강단에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늘 강조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저의 마음이 범어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농심(農心)과 만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문화는 교회 건축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현재 범어교회는 교회 이전을 위한 건축 중이다.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 건축을 하다 보면, 가장 좋은 위치에 예배공간과 당회실이 차지하게 되어 있다. 즉 건축의 초점이 장년세대에 맞춰지게 된다. 그런데 범어교회는 교회 부지 선정과 건축계획에서부터 달랐다. 이른바 어르신 세대가 앞장서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당을 지하에 두는 대신, 가장 접근이 용이한 1층은 체육관으로 만들어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두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수정되기는 했지만,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철저히 다음 세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국 이런 문화가 전 교회를 지배하는 문화가 될 때, 범어교회는 묵은 교회가 아니라 신대륙 같이 무궁한 가능성을 지닌 교회가 될 것이라는 장 목사는 말한다. 역사는 깊어가지만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가능성이 더 기대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범어교회를 향한 장 목사의 꿈이고, 범어교회 제자훈련이 궁극적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의 상이다. 물론 아직은 과정 중에 있다고, 이제 그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 목사의 소망 속에서 범어교회 제자훈련이 가진 가능성을 기대하게 된다.

발견5. 목회자 자신을 심고 자신을 거두다

그런데 장 목사는 제자훈련의 가장 큰 유익은 본인이 받았다고 말한다. 왜일까? 무엇보다도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매주 가정을 돌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도 가까이서 보고, 그들의 인생의 고민도 더욱 깊이 나누면서, 복음을 들고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들의 삶에 어떻게 심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회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훈련으로 인해 힘들지 않게 보냈다고 그는 말한다. 교회 이전을 결정한 후, 범어교회는 지역 주민의 반대라는 뜻밖의

나누고 싶습니다

디사이플 컨퍼런스

범어교회는 "디사이플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단기간의 집중적인 영성훈련을 실시한다. 제자훈련생을 대상으로 입소식과 퇴소식처럼 훈련 전후에 1일 집중 훈련시간을 갖는다. 하루 8시간, 혹은 12시간 정도를 인근 수련원이나 대학교 강당, 교회 등에서 실시하며, 4개의 강좌와 강좌에 이은 소그룹 나눔 시간으로 구성된다. 처음에는 제자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 양육코스 중의 하나로 임시로 실시했으나, 반응이 좋아 정기적인 과정으로 세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얻는 유익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일상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훈련과는 차별이 되며, 다른 효과를 갖는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인도자에 따라 반별로 영성수련회를 갖기도 하는데, 이를 교회 차원에서 훈련 과정으로 정례화한 것이다.

둘째는 훈련에 대한 각오도 새롭게 하고, 훈련 이후의 삶에 대해 큰 그림을 갖는 계기가 된다. 훈련 전 컨퍼런스 때에는 주로 훈련 전에 받아야 할 기초적인 양육, 예를 들어 큐티나 중보기도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훈련 후 컨퍼런스 때에는 훈련을 마치고 나서 가져야 할 사역의 비전이나 이를 위한 준비에 대해 나눠, 담임목회자와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셋째는 훈련생 전체 팀워크 형성에 좋다. 보통은 훈련 기간 중 반별로 엠티나 야유회 시간을 갖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 전체가 하나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다만 이런 단기간의 집중훈련은 보조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이런 훈련이 주가 되기 쉬운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만 주의한다면 단기 프로그램을 지역 교회에서 접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범어교회 제자훈련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시선이 양적 성장이나
목회자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각 성도에게, 한 영혼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니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한 영혼이다.
그리고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끊임없이 교회다워질 것이다.

복병을 만났고, 이로 인해 건축 허가를 받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교회 건축으로 인해 담임목회자의 리더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왜 이전하고자 하느냐?"에서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느냐?" 등 담임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장 목사가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전적으로 집중했던 시기였다.

"물론 부교역자 시절 청년부를 담당하며 제자훈련에 대한 경험을 했지만, 장년을 대상으로 한 제자훈련은 이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교재도 처음 사용하는 것이라 낯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때가 바로 건축문제로 인해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마 훈련에 집중할 수 없었다면, 그 시기의 어려움을 견뎌내기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훈련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훈련 받게 하신다고 말을 했는데, 인도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저로 하여금 제자훈련을 시작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이 힘들었지만, 건축 문제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장 목사가 훈련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기 제자반을 시작할 때 그는 인기 있던 신학교 강의도 그만두고 외부 교회의 설교나 강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고, 혼자서 4개 반을 모집하여 제자훈련을 실시했다. 사실 당시 범어교회의 규모라면 부교역자들에게 맡길 수도 있고, 신학교 강의까지 일부러 그만두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 적당히 제자훈련을 실시해도 누구도 그에게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다. 그만큼 그는 이미 자신의 목회역량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원칙대로 하기를 원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코피가 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그만큼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말한다.

범어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이런저런 열매를 맛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자훈련 인도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결국 훈련은 목회자 자신을 심고 목회자 자신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범어교회 제자훈련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은 목회자가 얼마나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느냐이다.

인도자가 훈련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나 환경, 능숙한 인도자는 없다. 그리고 인도자가 훈련에 집중한 만큼 열매는 거두게 되어 있다. 새롭게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목회자나, 오랜 세월 제자훈련을 통해, 그리고 나머지 다른 목회역량을 인정받는 목회자라도, 여전히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목회자만이 훈련을 통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성공의 길에서 낯선 땅이었던 제자훈련을 선택한 후 장 목사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 "저는 강단에서 자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범어교회가 영원토록 제자훈련을 할지 안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시무하는 동안에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어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며,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이것입니다. 훈련하는 것 자체가 훈련의 목표는 아닙니다. 훈련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자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범어교회 제자훈련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시선이 양적 성장이나 목회자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각 성도에게, 한 영혼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니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한 영혼이다. 그리고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끊임없이 교회다워질 것이다.

〈양승언 목사〉